

2020 년 11 월, 소그룹 교재 (샌안토니오 한인연합감리교회, 배혁 목사)

[11 월 첫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예레미야 31:31-34

제목: 언약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

찬송가:

1) 새 540 (통 219)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2) 새 93 (통 93) 예수는 나의 힘이요

여는 질문:

그 동안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맺은 약속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약속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마다 크고 작은 언약의 관계속에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전화기 사용을 위한 계약도 있고, 건물과 관련된 계약, 아파트 계약들도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맺은 결혼 서약, 친구들과의 약속, 하나님과 맺은 약속들도 있습니다.)

본문 이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크고 작은 약속을 맺으면서 그 관계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약백성인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을 섬기며 죄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을 때 그들과의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동시에 그들의 구원과 회복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하십니다.

새언약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32:33). 그런데 이것은 전혀 새로운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레위기 26:12).

언약의 내용이 바뀐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을 알게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함으로, 하나님과 언약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의 삶을 제한했어야만 했습니다.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무한하시고 자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스스로를 제한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행하다가 결국 언약을 깨뜨리게 되고, 언약대로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해 자신을 제한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속으로

1)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파기된 언약은 언제 맺어진 것입니까? (31:32)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었습니다. 이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돌판에 하나님의 법을 받음으로 구체화됩니다.)

2) 하나님은 새언약이 어디에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31:33)

(옛 언약과 같이 돌판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속,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되기를 원하십니다.)

삶속으로

1)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에 가장 기초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적으로 실천할 때에 더 분명히 새겨지게 됩니다.)

2)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약속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키기 위한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 손해를 감수하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떤 약속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 놓으셨듯이, 언약백성들도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수고와 대가가 따릅니다.)

암송구절: 예레미야 32:33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자녀와의 나눔

하나님의 법,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요?

[11 월 둘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예레미야 33:6-11

제목: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

찬송가:

1) 새 563 (통 411) 예수 사랑하심은 2) 새 545 (통 344)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되어도

여는 질문

사람들마다 소리에 대한 반응들이 다릅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소리와 싫어하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국 쉘퍼드 대학의 음향공학자 트레버 콕스(Trevor Cox)가 이끄는 연구팀은 웹사이트 Sound101.org 에 34 가지의 소리를 올려놓고, 네티즌들에게 각 소리마다 듣기 싫은 정도를 점수로 매겨 달라고 했습니다. 160 만 명 이상이 이 설문에 참여했는데, 모든 연령대와 문화를 통틀어 대답은 분명했다고 합니다. 바로 다른 사람이 구토하는 소리가 가장 듣기 싫은 소리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책 ‘파퓰러사이언스의 과학질문사전’, 비온 캐리 편저자)

본문이해

한 공동체 안에서 생산되는 소리는 그 공동체의 성격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매장에 들어갔을 때에 은은히 퍼지는 찬양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감동이 되는 이유도, 그 소리를 통해서 그 매장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유대 땅에서 좋은 믿음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 땅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짓과 불의, 우상 숭배의 소리가 들려 올 때에 하나님은 그 땅을 멸하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의 사람들을 몰아 내시고, 그 땅을 황폐하고 적막하게 만드셨습니다.

유대를 멸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유다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유다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유대성읍과 예루살렘에서 들리는 소리의 변화로 말씀해 주십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리를 발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과 신부의 소리, 사람들이 서로를 기뻐하며 축복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는 여호와께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라 들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10-11).

하나님께서도 이 소리들을 유대백성들을 통하여 그토록 듣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안에는 각기 다양한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들 중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리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소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서로를 축복하는 소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소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소리를 듣기 원하십니다. 죄악의 소리가 관영한 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리를 발하는 삶을 살아가는것도 하나님 백성의 기쁨일 것입니다.

말씀속으로

1) 하나님은 유다의 성읍을 치료하고 고치심으로, 어떤 풍성함을 나타내시겠다고 하셨습니까? (33:6)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나타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유다가 치료받기 전에는 불안과 거짓가운데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2) 하나님께서 유다가 회복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소리를 낼 것이라고 하셨나요?(33:10-11)

(유다가 회복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소리를 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선포하며, 이에 감사하는 말을 듣고자 원하십니다. 유대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지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통하여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달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하였습니다.)

삶속으로

1) 당신의 주변에서는 주로 어떤 소리가 들리십니까?

(가정이나 일터, 취미를 즐기는 곳 등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2)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듣고자 하시는 소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회복된 유다성읍과 예루살렘에서 듣고자 하셨던 종류의 소리를 우리의 삶속에서 듣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축복하는 소리,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소리, 거짓이 아닌 진실된 소리 등을 원하실 것입니다.)

암송구절

예레미야 33:10-11 후반절,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 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자녀와의 나눔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소리는 무슨 소리가 있을까요?

[11 월 세번째 주일 소그룹 모임]

본문: 예레미야 35:12-19

제목: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찬송가:

1) 새 286 (통 218)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2) 새 559 (통 305)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여는 질문

당신의 가정안에는 어떠한 신앙적인 문화가 있습니까?

(주일에 모두 함께 교회가기. 함께 모여 성경읽기. 찬양을 듣거나 함께 부르기. 식사 때에 기도하기. 선교나 수련회 함께 가기 등)

본문이해

하나님께서서는 예레미야에게 레갑 가문의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을 데리고 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레갑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며 거절합니다.

레갑 사람들은 포도주만을 거절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선조인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명령에 따라, 집도 짓지도 않고, 파종도 않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않고, 평생 장막에 살고 있었습니다.

요나답이 레갑자손에게 절제와 금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발로였습니다. 요나답은 그의 자손들이 세상의 즐거움과 풍요함과 편안함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여서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레갑 사람들의 모습과 현재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대조적인 지를 보여 주셨습니다. 레갑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기 위해 세상의 풍요와 즐거움을 거부했지만, 유다백성들은 세상의 풍요와 즐거움을 위해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레갑 자손들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당신 앞에 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19). 하나님 앞에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레갑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자신들의 풍요와 즐거움, 편한 삶까지도 제한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오늘날에도 레갑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섬김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가문이 세워지기 위해서 요나답과 같은 선조가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요나답과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선조, 믿음의 가정 문화를 잘 이루고 물려주는 선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나답(여호나답)은 하나님께서 예후를 부르셔서 아합왕을 제거하시고 바알 신앙의 잔재를 없애라고 했을 때에 예후를 도왔던 사람입니다. 요나답은 그 이후 광야에 머물렀고, 후손들에게 엄격한 명령으로 금욕과 절제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레갑의 자손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그때까지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 속으로

1) 레갑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술을 권유했을 때에 마시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35:6)

(레갑 사람들은 그 선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술을 마시지 말라고 명령했기에 이를 그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외에도 요나답의 명령에 따라, 집도 짓지 않고, 파종도 하지 않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않고, 평생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2) 하나님은 레갑자손들과 유다 사람들의 차이를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35:14, 16)

(레갑자손은,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였는데,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삶 속으로

1) 보통 세상 사람들이 그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유산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생의 자랑거리, 세상적인 풍요한 삶, 물질, 명예, 권력 등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2) 당신의 가정안에서 만들기 원하는 신앙적인 유산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그룹 인도자는 참여자가 작은 것이라도 가정안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각 가정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문화가 있어야 합니다.)

암송구절: 예레미야 35:19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녀와의 나눔

당신은 가정안에는 어떤 신앙적인 문화가 있었으면 합니까?

[11 월 네번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예레미야 44:15-23

제목: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실행하라

찬송가:

1) 새 322 (통 357)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2) 새 497 (통 274) 주 예수 넓은 사랑

여는 질문

자신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은 이에게 말해야만 했던 적이 있나요?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경청하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때로 상대방이 들으려하지 않지만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를 책망하거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때에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을 것을 알지만, 그들을 사랑하고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본문이해

예레미야는 시종일관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하였고, 결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모습은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유다 땅에 남아 있는

잔류민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바벨론과 화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바벨론 왕이 세운 유다총독과 바벨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요하난을 비롯한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에게 대적한 이스마엘의 사건으로 인해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했습니다.

요하난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면, 좋든 싫든

다 들겠다고 합니다(42:6). 예레미야는 유다에 남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피난가지 말고, 유다땅에 남아서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하고 도리어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레미야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이제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다.”고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실행하겠다.”고 합니다. 극기야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늘여왕’에게 분향하겠다고 합니다.

애굽으로 피난간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상은 하늘여왕도 아니고, 자기 자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어떤 말보다도 자신들의 말을 최고로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말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우상을 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에 맞추려고 하고,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늘여왕: 하늘여왕은 메소포타미아에서 금성(성별)과 동일시되었던 이쉬타르 여신 (아스다롯, 아세라)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쉬타르는 전쟁과 사랑의 여신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건재하던 시절에도 많은 여인들이 하늘 여왕을 숭배했습니다.)

말씀속으로

1) 애굽으로 간 유대인들은 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여 전제를 드리겠다고 했습니까? (44:17-19)

(애굽의 유대인들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제사드린 것을 멈춘 후로 자신들에게 재앙이 임하고 멸망을 당하였으므로, 다시 하늘 여왕을 섬김으로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 하나님은 왜 유다 땅을 황폐하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44:22)

(남유다 사람들은 애굽에 가서까지 우상을 섬기는 가증한 일을 행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것이 복받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앙을 가져오는 가증한 일임을 그들에게 알리시고, 황폐케 하심으로 증거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삶속으로

1) 당신은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어려움을 경험하십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그 말씀이 자신의 기호에 맞지 않거나, 그 말씀대로 살 때에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다른 일에 더욱 관심하는 등의 이유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고 우선하는 것으로 두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 줍니다.)

2)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유다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뜻과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에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뜻과 다른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를 거짓말쟁이로 여겼고, 결국 하나님 자체를 버리고, 이방 우상을 섬기겠다고 공포하였습니다.)

암송구절: 신명기 10:4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자녀와의 나눔

당신은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11 월 다섯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예레미야 애가 3:19-33

제목: 하나님의 본심

찬송가:

1) 새 314 (통 511)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2) 새 294 (통 416) 하나님은 외 아들을

여는 질문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속상했거나, 반대로 나의 마음을 알아 준 것 같아서 기뻐던 때는 언제였나요?

(때로 상대방에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한 것을 오해하여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때에 자신의 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에 속상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부부, 부모와 자녀, 교우들 간에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이해

사람들은 상대방의 보여지는 행동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외적인 것을 판단 기준으로 삼다가, 상대방이 품고 있는 내면의 의도를 왜곡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으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극심한 탄식에 이릅니다. 여호와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고 할 정도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 인해 극심한 번뇌에 빠집니다(3:18).

그런데도 예레미야가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본심은 그렇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3:33).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서 내리신 재앙은, 유다를 중오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으로 보이지만, 원래 본심이 아니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인지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외부적으로 악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도리어 유다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본심으로 인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자신도 그러한 오해를 동족으로부터 받아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겉으로 보기에는 동족들에게 저주하는 것 같았고 미워하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유대 동족들이 자신을 비방하고 죽이려고 했어도 예레미야는 자신의 동족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해가 있어도 예언을 멈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이루어지는 외적인 현상을 가지고 내면의 진실을 알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조언과 회초리가 사랑이 아니라 미움으로 해석될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 중에는 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 같고 불공평한 처사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본심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를 알 때에 예레미야와 같이 소망을 품게 됩니다.

성도는 고난과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성품과 그 본심을 헤아릴 때에 소망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속으로

1)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3:22-23)

(여호와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2)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근심하게 하는 일이 있지만, 결국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까?(3:32)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삶속으로

1)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의도에 대해서 오해하며 원망했던 적은 없었나요? 그런데 지금은 그 일을 어떻게 보십니까?

(마태복음 20 장에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나중에 온 일꾼이나 처음에 온 일꾼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을 때에 먼저 온 일꾼이 주인에게 불평합니다. 이때 주인은 말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택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20:15). 때로 하나님의 모습이 불공평하거나 악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음을 깨닫게 되기도 한다.)

2)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당신에게 소망을 주는 성품들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는 3:22 절에서, 하나님의 인자, 긍휼, 성실하심의 성품을 고백하며, 낙심가운데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암송구절: 예레미야 애가 3:33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자녀와의 나눔

부모님께서 훈계를 하실 때에 부모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하신다고 생각합니까?